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5. 11. 2.(일) 11:00, (지면) 2025. 11. 3.(월) 조간 배포 2025. 10. 31.(금) 오후

K-씨푸드, 전 세계 소비자 입맛 공략 나선다

- 11. 1.(토)~29.(토) 2025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(K-Seafood Global Weeks) 운영

해양수산부(장관 전재수)는 우리 수산식품의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1월 1일(토)부터 29일(토)까지 29일간 '2025년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(K-Seafood Global Weeks)'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
올해로 9회째인 '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'은 중국 광군제(11월 11일),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(11월 28일) 등 세계적인 소비 성수기와 연계하여 우리 수산식품을 홍보·관측하는 행사로, 미국·중국·일본 등 18개국의 온·오프라인 매장 197곳*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.

* 미국, 중국, 대만, 일본, 몽골, 베트남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태국, 인도, 호주, 네덜란드, 영국, 체코, 프랑스, 카자흐스탄, 아랍에미리트 / 온라인 21개소, 오프라인 176개소

온라인의 경우, 중국 타오바오(Taobao), 미국 아마존(Amazon) 등 2021년부터 해외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운영 중인 'K-씨푸드 온라인 전용관*' 10개소를 비롯한 21개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홍보·관측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.

* 미국(아마존, H-마트), 중국(타오바오, 징동닷컴), 호주(아마존), 태국·싱가포르·말레이시아·인도네시아·베트남(쇼피) 등 8개국 10개소 온라인몰 내 K-씨푸드 전용관 운영중

오프라인의 경우, 미국 에이치마트(H-Mart), 태국 빅씨마트(Big-C) 등 대형 유통매장 및 한식 가맹점(프랜차이즈) 매장과 연계한 현장 관측 행사를 진행하는 등 K-씨푸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.

특히, 올해는 미국 에이치마트 30개 점과 연계해 한국산 활넙치 관측행사를 진행하는 등 최근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품목들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.

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“이번 행사가 어려운 수출 여건 속 우리 수산식품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해외 소비자들이 우수한 한국 수산식품을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	책임자	과 장	윤상훈 (044-200-5480)
		담당자	사무관	박지수 (044-200-5483)



□ 행사목적

- 세계 최대 할인행사와 연계, 주요 수출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온·오프라인 홍보행사를 추진하여 우리 수산식품의 인지도 제고 및 소비 촉진

□ 주요내용

- (추진기간) '25. 11. 1.(토) ~ 29.(토), 29일간(매년 11월 첫째 토요일 시작)
* 美블랙프라이데이, 中광군제 등 세계 최대 소비 시즌과 연계 추진
- (추진내용) 18개국 글로벌 유통채널의 온·오프라인 매장(197개)에서 판촉, 광고 등 우리 수산식품 117개사의 집중 홍보행사 전개

□ 행사 포스터

